

## 미래의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발상

제 목 Die Zukunftsmacher: Eine Reise zu Menschen, die die Welt veraendert-und was Sie von ihnen lernen koenen\*

지은이 Joanna Stefanska and Wolfgang Hafenmayer

출판사 Muenchen: oekom verlag

출판년도 2007

페이지 253쪽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책은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삶에 의미를 주는 직업을 찾아 행복해 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역할모델을 제시하면서 함께 제시하고 있어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사회복지의 미래 방향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착안점을 주고 있어 한번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서평에서는 사회복지의 미래 방향성 관련 내용만을 다루고자 한다.

1) 저자들에 의하면 삶에 의미를 주는 직업은 ‘긍정적 영향’(positive impact)을 주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체계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관찰에서 귀결되는 중요한 발상이다. 즉 사회복지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지구라는 전체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조금만 관찰하면 누구나 금방 수긍할 수 있다. 이점을 일관성 있게 철저히 고려한다면 사회복지 행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 목적만을 보고 쉽게 수긍하기 보다는 그 영향을 심사숙고하여 가능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갖도록 구성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귀결에 도달하게 된다.

\* 참고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나왔다.

요안나 슈테판스카, 볼프강 하펜마이어 공저, 김요한 역, 가슴 뛰는 삶의 이력서를 다시 써라: 인생의 롤모델을 찾아 떠난 인터뷰 세계여행, 바다출판사, 2009. (323페이지)

2) 다음으로 사회복지 행위를 판단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저자들에 의해 제시된 긍정적 영향의 두 가지 요소인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이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a) 첫 번째로 모든 사회복지를 위한 행위가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기본적 고려요인으로 전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으로서 저자들은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을 것, 사회적으로 화합적일 것 그리고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할 것 등의 3가지 측면을 들고 있다. 현재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이다. 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에 의한 자원사용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근거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명확해진다.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시스템에 근거한 자원사용 방식에 의해 모든 인간이 자연적인 생존기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자연적인 생존기반이 파괴되지 않는 경우 그 시스템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스템도 그 구성에 있어 이러한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면 현재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하리라 생각된다.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저자들은 별 다른 언급이 없어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스템에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이들 지속가능성들 간의 관계, 특히 보다 근본적인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이 다른 두 가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 두 번째로 사회복지행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이러한 지속가능성은 어떤 목적을 위한 행위가 지속가능한 조건을 의미하므로 수단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무엇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긍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제시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목적이 되어 이 책이 사회복지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측면을 갖게 된다. 저자들은 2005년에 '새천년 생태체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1,300 여명의 학자들에 의해 포괄적으로 연구되고 작성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 질은 '좋은 삶을 위한 기본적 물질조건', '건강', '안전', '좋은 사회관계' 그리고 '선택

과 행동의 자유'의 다섯 가지 주요 구성요인과 이들에 속하는 13가지의 하위 구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스템은 5가지 주요요인과 모두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스템이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경로를 검토할 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질 구성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이 책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갖는 직업을 제시하다 보니 역할모델로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repreneurship)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개념 하에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크게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들은 사회적 그리고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기업적인 방식에 의해 가능하게 하여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몰입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에 관해서는 이 책의 부록에 있는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교수의 '경제적 사회기업가가 해답이다'라는 글이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유누스에 의하면 현재의 자본주의 개념은 너무 좁다고 한다. 즉 자본가가 목적을 단 한 가지, 즉 경제적 이윤의 최대화에만 둔다고 전제를 하는데 이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개념화의 실패'라고 한다. 그 결과 통상 시장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실패'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결과들(환경파괴, 불평등, 건강문제, 실업, 빈민가, 범죄 등)의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가 진전한 현재에 와서는 기업가가 지업의 지속성을 위해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사고의 경계를 기업의 경계로부터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경계로 확장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도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누스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가가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둘 다 한 가지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하나는 전통적 기업가처럼 이윤최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서 좀 더 좋은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데 기여하는 목적, 즉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

를 전통적 기업가와 구분하여 사회적 기업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도 기업가인 이상 이윤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을 이윤극대화를 하는 기업과 구분하여 ‘무적자 기업’이라 유누스는 명명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목적을 갖는 기업이 100% 이상의 비용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사회적 기업가는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도적 변환과정의 결정적 순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가를 특별히 ‘경제적 사회기업가’로 명칭하고 있다.

공공사회복지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적 사회기업가가 증가할수록 공공재정의 어려움을 건전한 방향에서 해결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사회기업가가 존재하긴 하는데 왜 그 비중이 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유누스는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경제적 사회기업의 성장가능성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경제적 사회기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예가 있으므로 이를 개념적으로 한번 인정하고 나면 기존 시장에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유누스는 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편협한 자본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시장개념을 사회기업과 사회기업가를 수용할 수 있게 확장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에 성공하면 시장에 경제적 사회기업가가 넘쳐나게 되고 시장은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도 똑같이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론적으로 경제적 사회기업가 충분히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 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업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다. 이에는 기존의 자본시장과 구별되는 ‘사회적 자본시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시장에서 진입과 탈퇴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 이들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표로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기업가를 공급하고 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도 존재하여 ‘사회적 MBA’ 같은 인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업의 금융을 전담하는 새로운 은행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누스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도 사회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모델에 관한 경쟁공모전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기업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으로서 그러한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그 모델의 실현을 위한 동반관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전에서 제시된 모든 모델들을 공개하여 다른 모델을 구상하는 착안점이나 경제적 사회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자본시장'은 사회기업가에 의해 사회기업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누스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경제적 사회기업의 형성이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 되었다는 점이다.

유누스 교수는 적합한 조건만 조성되면 경제적 사회기업이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사회적 문제를 항상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짚어질 수 있는 역동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복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현실의 역할모델은 저자들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4) 이 책을 읽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점은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이제는 물질적 요건과 함께 삶의 의미가 사회복지의 요소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삶의 질과도 동치로 놓을 수 있는 행복이 직접적으로는 물질적 욕망과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관계에서 파생되지만 이러한 관계 자체가 삶의 의미를 고려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겠다. 즉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욕망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충족수단을 제공하는데 사회복지의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물질적 충족의 생태학적,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삶의 의미를 통해 욕망을 조절하는데도 사회복지 정책의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